

DB활성화를 위한 제언 情報수요 본질을 강조한다.



DB칼럼

徐南源 (고려대 교수)

1. 情報化社會와 DB산업의 탄생

우리가 情報化社會를 완성하려는 의지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이 확연하다. 國際化를 달성하고, 開放化를 이겨내고, 그리고 海外市場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은 우리 사회가 고도의 지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실제에 활용하는 데에서 찾는 것은 만인이 수긍하는 바이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는 情報를 중시하며 이를 利用하는 상황이 사회 전반에 충만할 필요가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된다. 사실상 經濟나 政治면에서 선진화를 달성한 社會는 고도의 情報력을 구사하고 있음이 판명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情報化社會의 단계에서는 情報의 수수를 DB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때에 그 위력이 지

대하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DB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대한 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과업을 전개하고 있다. 즉 정부는 DB산업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 DB업체는 DB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들을 지원할 단체가 출현하여 다각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우리 DB산업은 성장의 가닥이 잡혀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하지만 대소의 DB수가 5백에 육박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DB이용자로서의 통신망 가입자 수는 10만을 상회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情報化社會에서는 DB산업의 출발과 성정은 숙명적이라고 하여도 절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2. DB산업의 成長과 事業性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DB산업이 다른 경제분야의 신흥산업과 같이 건전한 성장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여 본다면 상당한 의구심이 울어 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환언하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DB산업이 사업적인 수지 타산에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처지에 들어서 가고 있는가를 알아 봐야 한다면 아직 긍정적인 해답이 발견되고 있지가 않다는 것이다.

언급의 필요도 없이 情報化社會를 위한 DB산업의 육성이라고 하여도 DB산업의 독자적 역력에 의한 성정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아무리 DB가 情報化社會의 사회간접투자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성격상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는 것이라면 사업성이 도외시될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DB사업은 몇가지의 경우를 제외하면 아직 수지에 관한 전망이 별로 밝지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로 밝혀지고 있다. 비록 DB산업이 외형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DB利用이라는 내용 면에 있어서는 활성화에 대하여 아직 괄목할 만한 신장을 기록하고 있지 못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많은 사업체가 아직도 DB利用에 대한 사용료 정책에 소신 있는 방침을 확립하고 있지를 못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DB산업이 가까운 장래에 사업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DB利用의 활성화를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가 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보를 DB를 통해 해결하는 데에 수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 DB利用의 공급과 수요

DB利用의 활성화 문제는 情報의 供給과 需要

의 양면에서 생각을 하여보는 것이 편리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DB활성화의 문제점들을 情報의 공급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을 때에 나타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흔히 DB이용이 미진한 까닭으로 DB수가 부족하고, 개발된 DB는 이용 방식이 불편하며, 그리고 이용자에게 단말기가 보급되어 있지 않다는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들 견해는 DB활성화를 주로 정보의 공급 측면을 중시하면서 요인을 찾으려는 데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DB가 선진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들은 DB의 공급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지, 본질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정보수요를 개발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요인 분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DB산업의 육성을 위한 수요개발의 문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

4. 情報利用의 수요 본질과 문제점

무엇보다도 정보이용의 욕구는 사회적 분위기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사회는 모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 입수하고, 분석하며, 또한 객관적 정보에 근거를 두고서 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 비하면, 후진사회는 그러하지가 못하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의 보유나 부재의 문제와는 다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보의 이용도에 관한 한은 선진사회에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여지는 것이 틀림이 없다.

다음으로 정보가 요구된다고 하여도 사실이 중시되는 경우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정보수요도가 동일하지가 않다. 설명의 필요도 없이 전자의 경우는 다량의 정보를 요구하게 되는 데에 비하여 후자의 경우는 미량의 정보로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보수요가 최고 결정자의 의향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로만이 사용되는 경우라면 신속성은 몰라도 정확성

은 묵살된다고 하여도 틀림이 없다. 또한 정보는 표현형식에 따라서 진위가 뒤바뀌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정보요구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과학적 판단은 쉽사리 용납되지 않는다.

또한 사회에서 실용성이 인정되는 정보는 많은 경우에 그 원천에서부터 필요한 상태로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보는 원시 상태인 자료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서 정보를 추출하려면 자료를 분석하는 기술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비유를 들자면 인간이 섭취하는 음식물(즉 정보)은 본시 재료(즉 자료)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음식물은 마련하기 위해서는 음식재료에서 요리법을 작용시킬 때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DB자체를 정보라고 할 수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많은 DB는 그 자체가 정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틀림이 없다.

또한 정보수요는 경제성에 예민하다. 즉 정보의 입수에 지불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대가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산출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정보활동에 상당한 요금이 부가되면 정보수요를 소멸시키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정보입수 방식에 대한 비용부담이 전통적 방식보다 괄목하게 저렴하지가 않은 한은 수요유발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옳다.

5. DB利用의 활성화 대책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DB산업의 육성 또는 성장을 정보수요의 측면에서 논한다면 이상과 같은 정보이용의 본질과 특징을 충분히 참작하여 결코 DB를 이용하는 경우가 전통적인 방식보다 더욱 유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음을 입증하는 과업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사회분위기의 조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관심문제에 대해서 DB를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한 연후에 처리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를 실감있게 사회대중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연을 보이는 경진행사와 같은 것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정보는 DB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간단히 조작하면 추출해 낼 수 있음을 시범이나 교육을 통해서 이용자에게 보급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내외 통계자료를 이용하면 최근의 동향까지를 포함한 시장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과거에 성과를 거둔 공공시책이나 사업방식이 결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를 두고 마련된 결과라는 사례를 발견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여 볼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DB성공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널리 홍보함에 있어서, 결코 수요창조면을 중시하였음을 강조함이 옳다는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DB공급자가 DB검색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사서함에 담아 주는 등의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정보수요를 개인별로 사전에 분석하여 정보구분에 따라서 제공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보수요를 만족하려면 '원시'DB보다는 '포장'DB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필요가 있다. 이는 마치 取食을 위해서라면 요리 재료를 제공하는 것보다 속식이 가능한 완성된 요리를 제공하는 것이 현대적 방식이 된다는 이치와 동일한 것이다.

6. 맺음말

DB산업의 육성은 기필코 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보공급의 측면에서 만이 아니라 정보수요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사업을 수반할 때에 DB산업의 육성은 본체도에 정상적으로 진입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